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시행안내

4학년 : 출입무예자 : 2015.08.04(화) 10:30~17:00 2학년 : 2015.08.06(목) 10:30~17:00
3학년 : 2015.08.05(수) 10:30~17:00 1학년 : 2015.08.07(금) 10:30~17:00
다전공자 : 2015.08.10.(월) 10:30~17:00
전학년 : 2015.08.11.(화) 10:30~17:00 / 캠퍼스 간 교차수강, 재수강 신청 가능



서울캠 대운동장,
알아보시겠어요?

서울캠퍼스 SPACE21 사업에 따라 대운동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대운동장에 존재했던 스탠드와 본부석, 농구코트 등은 모두 철거된 상황이다. 현재 대운동장 주변은 펜스로 가려져 있어, 앞으로 달라질 풍경이 궁금해진다

Newsmaker

유니버시아드 첫 수영종목 메달
유현지 (스포츠지도학 2013) 양



“꼴등이라고 생각, 이 악물어 메달 목에 걸었다”

장연수 기자 ys0501994@khu.ac.kr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12일 간의 치열한 경쟁을 끝으로 한 채 지난 14일 막을 내렸다. 흥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우리나라에는 금메달 47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29개라는 성적으로 하계 유니버시아드 참가 아래 처음으로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수많은 메달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수영’ 42개 종목 중 유일하게 거둔 메달이다. 배영 50m 부문에 출전한 우리학교 유현지(스포츠지도학 2013) 양이 그 주인공이다.

자신이 ‘꼴등’이라는 생각으로 결승전에 오른 유 양은 예선보다 더 집중했다. 집중력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 덕분에 그는 홍콩의 아우 하오이 순 스템파니(AU Hoi Shun Stephanie) 선수와 함께 배영 50m 공동 은메달을 거머쥘 수 있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과 달리, 유 양은 사실 ‘일반 학생’ 신분이다. 선수 신분이 아닌 일반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받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어려운 점은 없을까. 이에 대해 유 양은 “평소에도 그랬다”는 말과 함께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외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며 털털하게 웃었다. 유 양은 현재 학교 체육부가 아닌 경남체육회 소속으로 있으며, 유니버시아드 역시 경남체육회 소속으로 출전했다.

유 양이 수영을 접한 것은 5살 때다. 이후 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 현재까지 수영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유 양은 “사실 초등학교 이후로 수영을 계속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지금은 수영 없는 내 삶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수영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수영 선수로서 유 양의 목표는 무엇일까. 유 양은 “제 기록을 갱신하고 싶다”라며 “이번 유니버시아드에서 은메달을 딴지만 사실 결승전 기록보다 스윔-오프 때 기록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스윔-오프는 비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 기록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목표예요”라고 말했다. ‘스윔-오프’를 넘어 유 양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기록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메르스’ 강동 경희대병원 13일 재개원

경영관리실, “간접손실 포함하면 피해액은 300억 원 이상 예상”

강동경희대병원 재개원

이시은 기자 dtldms77@khu.ac.kr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의 76번째 환자 발생으로 지난달 19일 문을 닫았던 강동경희대병원이 지난 13일 재개원됐다. 특성설 격리대상자 97명에 대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보건당국이 11일 집중관리병원 지정을 해제한 데 이은 조치다. 전면폐쇄 후 25일만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달 6일 76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뒤 다음날 응급실을 긴급 폐쇄했다. 이후

병원 내에서 혈액 투석을 받던 메르스 의심환자가 165번째 양성 판정을 받자 지난달 19일 혈액 투석실을 제외한 전 병원을 폐쇄했다. 가장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혈액 투석실 환자 90명과 의사 2명, 간호사 5명은 코호트격리(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통제로 격리하는 조치) 됐다.

의료진 7명은 격리된 후에도 외부 의료진과 함께 쉬지 않고 투석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격리대상자였던 323명의 교직원들이 지난 11일 전원 복귀를 마치면서 원내업무 또한 정상화 됐다.

그간 병원은 ‘메르스 여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환자 발생 시점부터 매주 1회 인공신장실을 포함한 병원 건물 전체에 소독 작업을 시행했으며, 재개원을 앞두고 있던 지난 9일에는 전체 환경청소를 실시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응급실과 투석실의 경우 ‘공기멸균 공조시스템’을 도입, 유해한 공기와 각종 병균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폐쇄에 따른 피해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 경영관리실 신재구 팀장은 “6월 및 7월의 직접적인 손실 뿐 아니라 이후 진료실적 회복까지 약 3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타 병원보다 매우 큰 규모”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현재 정부에 추경예산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원내 예산통제 및 외래진료시간 확대 등 각종 대책을 통해 손실을 조기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회복조짐 또한 좋다. 병원 측은 “재개원 2주차 기준 메르스 전 대비 외래환자는 50%, 입원환자는 병동 순차적 오픈으로 35% 정도 회복됐다”며 “2주차에 들어 회복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진료 수의 공백으로 인해 완전한 회복 까지는 당분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인들의 시인, 《김수영 전집》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⑯

이영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건 몰라도, 시를 쓰고 읽는 일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범접하지 못할 대단한 기록을 가진 시의 공화국이다. 매년 몇 백여 권의 시집이 출판되고 20세기를 통하여 백만 권 넘게 판매된 시집이 여러 권에 달했던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말고는 없다. 현재의 지구 문명을 지배하다 시피 하고 있는 영어권에서도, 같은

문명권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시집이 이렇게 활발하게 출판되고 읽히는 일은 없었다.

한국에서 시인은 존경받는 예술

가이자 정신적 스승이다. 이 특별한 시의 공화국에서,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 특히 시의 길에 갓 들어선 젊은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다. 김수영이 바로 그다.

시인이 작고한 이후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수영 시인의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젊은 시인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수영의 시에 어떤 매력이 있어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김수영은 존경받는 시인을 넘어

한국 지성의 표상이다. 김수영은 예술가와 지식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모범을 보여준다. 김수영이 생각하는 예술가란 인간이 가진 꿈과 감정을 그려내어 현재의 삶을 넘어서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보다 나은 내 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식인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 김수영만큼 선명한 원칙을 제시한 한국의 지식인은 없었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o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p 페터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u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g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젊은 세대들이 왜 ‘복고 문화’에 끌리는가?

서상훈 (문화평론가) > 7면

